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7월 28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82,2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3,9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620원

2026년 7월 29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8월 투자 전략

장기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중요해지는 시점

8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2Q 실적과 더불어 AI 사업 전략에 주목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7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8/5일 SKT, 8/6일 LGU+, 8/12일 KT 실적이 발표될 전망이다. SKT/LGU+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며 국내 AI 네트워크 플랜 기대감이 높아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2분기 SKT/LGU+ 연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8월 국내에도 AI 기지국 도입이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신규 주파수 공급과 함께 5G SA 도입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 요금 인하 이슈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독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8월 통신 투자 환경은 밝다는 판단이다.

AI 데이터센터/AI 기지국 전략 중요, 5G 요금제 개편 논의 가능성에 집중

8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지만 굵직한 내용들이 많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1) 통신 3사 2분기 실적 발표, 2)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확정 이후 세부 일정 발표, 3) 통신 3사/과기부 AI 네트워크 민관 협업체 구성, 4)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선정 2차 결과 발표가 대표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별히 부정적인 뉴스가 없는 가운데 상반기 실적 호전에 따른 2026년 이익 성장 기대감 확대, AI 기지국 확산 및 5G SA 투자 개시,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및 요금제 개편 논의 등이 부각될 공산이 커 보인다. 투자 환경은 양호할 것이라 판단이다.

8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재료 있는 종목 위주로 비중 높여야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8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하며, 8월엔 SKT와 더불어 LGU+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s로 제시한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LGU+/SKT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며, SKT는 AI 국책 사업자 선정 및 AI 데이터센터/기지국 투자 본격화, LGU+는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KT의 경우엔 8월에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하면 특별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라 저점 매수/고점 매도로 박스권 트레이딩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8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매출 성장 기대감 높아질 것임을
감안 시 기대배당수익률 매력적
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AI 기지국 보급 확산을 위해 5G/6G 투자 가속화가 예상되고, 2) 2027년 요금제 개편을 기반으로 ARPU 성장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것이며, 3) 요금제 업셀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기대배당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이며, 5)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8월)	투자의견 (7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AI 기지국 육성 위해 5G/6G 투자 가속화 전망 • 2027년 신규 주파수 공급, 요금제 개편 예상 • ARPU 성장 재개 감안 시 통신사 밸류에이션 매력적 • 장기 DPS 성장 지속될 전망. 기대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8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될 전망이고 서비스 매출액 증대 기대감 생겨날 시점이기 때
문

2) 8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2Q 실적 좋고 매출 성장 기대감 생겨날 시점

2026년 8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8월 5~12일 통신 3사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전망이다. KT를 제외한 SKT/LGU+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며 8월 국내에도 AI 기지국 도입이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신규 주파수 공급과 함께 5G SA 도입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상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 요금 인하 이슈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독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8월 통신 투자 환경은 밝다는 판단이다.

2026년 2분기 SKT와 LGU+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SKT는 해킹 충격에서 벗어난 영향이 크고 LGU+는 경쟁사 영업정지 및 인력 감축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 5G 가입자 회복에 따른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증가, 2)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정제, 3) 가입자유치비용 관련 상각 자산 정제에 따른 마케팅비용 정제, 4) 지선 관련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 증가가 실적 호전의 공통 사항이 될 전망이다. 단 KT의 경우엔 서비스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상대적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피지컬 AI 활성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신규 주파수 경매 일정, 통신사 매출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및 5G SA 요금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IT 수요 진작 측면에서도 이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기존엔 기지국 최적화를 위해 AI를 사용했다면 이젠 AI 활성화를 위해 기지국 고도화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AI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DU 신호 처리를 고도화하며 RU의 효율성을 높여 단말기(스마트폰/자동차/로봇/드론/UAM/공작기계)와 단말기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피지컬 AI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규제 기관은 신규 주파수 할당에 나서고 통신사는 신규 주파수 기지국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투자 증대를 이유로 요금제 업셀링을 시도하고 IT 업체들은 AI 기지국을 통해 성장을 시도하는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8월 이후 통신사 ARPU 성장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8월)	투자 매력도 (7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8월 SKT/LGU+ 컨센서스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 예상 - LGU+ 8월 자사주 매입/소각 로드맵 발표 예상 - 과기부/통신 3사 8월 AI 네트워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예정 - 상반기 실적 양호, SKT/LGU+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미국 어퍼 C밴드 경매 확정, 5G SA 시대 본격 개막 - AI RAN 도입 본격화, 5G SA/6G 투자 동인 될 전망 - LTE/5G 통합 요금제 출시, 사실상 신정권 요금 인하 일단락 - LTE/5G 요금 통합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 위한 사전 작업 완료 - 중국 통신사 토론키 기반 AI 패키지 요금제 출시, AI 과금화 추진 5G SA/6G 투자 활성화 위해 통신사 요금제 개편 시도 예상 - 피지컬 AI 활성화 위해 AI RAN 구축 전망, 5G SA 기지국 변화 예상 - 국내 5G 신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대두, 3분기 이슈 부상할 듯 - SKT 배당 조기 정상화, 4분기 이후 비과세 배당 전망 - SKT 주가 상승에도 5G SA 시대 돌입 감안 시 Valuation 부담 낮음 - 통신사 장기 DPS 성장성 감안 시 기대배당수익률 낮지 않음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제 4 이동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 7월 통신업종 수익률은 KOSPI를 상회, SKT 상대적 강세 지속되는 양상

최근 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
KOSPI 수익률을 하회했으나 8
월엔 아웃퍼폼, 종목별로는 SKT
의 강세 지속

7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상회하였다. KOSPI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시장대비 부진한 양상을 지속하였다. 특별한 재료가 부각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종목별로는 SKT가 6월 주가 급락을 나타냈으나 7월 중반 이후 탄력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AI 기지국 관련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상대적 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도표 3. 2026년 7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6.0	(5.8)	25.6	(7.9)

주: 지수는 7/27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7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8.1	(0.1)	27.7	(2.2)
KT	4.2	(11.0)	23.9	(13.1)
LG유플러스	3.5	(10.5)	23.1	(12.6)

주: 주가는 7/27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8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상회할 듯, SKT와 LGU+ 투자 유망 평가

8월 국내 통신서비스업종 수익률
KOSPI 상회할 듯, SKT는 실적/
피지컬 AI, LGU+는 자사주 매입
이 주가 올릴 전망

2026년 8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코스피 단기 급락 이후 상승 전환이 나타난다고 해도 시장 수익률 수준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SKT의 경우엔 이미 방어주 성격이 아닌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LGU+는 유동 물량을 감안할 때 자사주 1,000억원 유입이 수급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8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지만 굵직한 내용들이 많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1) 통신 3사 2분기 실적 발표, 2)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확정 이후 세부 일정 발표, 3) 통신 3사/과기부 AI 네트워크 민관 협의체 구성, 4)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선정 2차 결과 발표가 대표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별히 부정적인 뉴스가 없는 가운데 상반기 실적 호전에 따른 2026년 이익 성장 기대감 확대, AI 기지국 확산 및 5G SA 투자 개시,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및 요금제 개편 논의 등이 부각될 공산이 커 보인다.

통신 3사는 각각 8/5일 SKT, 8/6일 LGU+, 8/12일 KT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KT를 제외한 SKT와 LGU+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실적 시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패시브 수급 유입이 예상된다.

2026년 7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어퍼 C밴드(3.98~4.14GHz) 160MHz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법적으로 2027년 6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인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시점은 2027년초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주파수 경매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피지컬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서히 5G 신규 주파수 공급이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요금제 출시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단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 2027년 ARPU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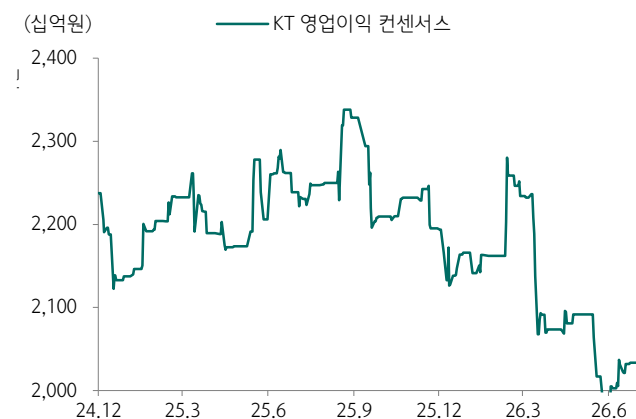
도표 5.8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8월 미국에 이어 국내에도 AI 기
지국 활성화 5G SA 도입 이슈
커질 것, 2분기 실적 양호해
DPS 성장 기대감 높아질 전망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2분기 LGU+/SKT 우수한 실적 발표 예상, 이익 전망치 상향되면서 패시브 수급 도입 전망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확정 이후 세부 일정 발표 예상 8월 통신 3사/과기부 AI 네트워크 민관 협의체 구성 예정, 5G SA 도입 본격화 예상 -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2026년 연말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선정 2차 결과 발표 예정, SKT 긍정적 - 개보워 개인정보유출관련 과징금 부과 예상, 하지만 예상보다 규모 적을 듯 - LTE/5G 요금제 통합, 요금 인하 정책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 - 중국 토큰 기반 AI 요금제 출시, AI 과금제 시도 본격화 - SKT 1분기 DPS 830원 지급, 2024년 수준의 영업이익/배당금 지급 전망 -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급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비용 통제로 이익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숙기 후반 모습 연출 중 -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 LGU+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2026년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일시적 감소 예상 - SKT를 제외한 KT/LGU+ 2026년 배당금 총액 정체 예상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정체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AI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통신사 2026년 이익 증가/DPS 성장 흐름 전망, AI RAN/5G SA 도입 기대감 팽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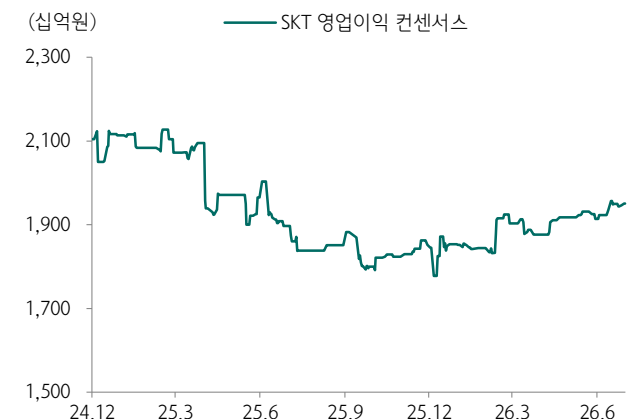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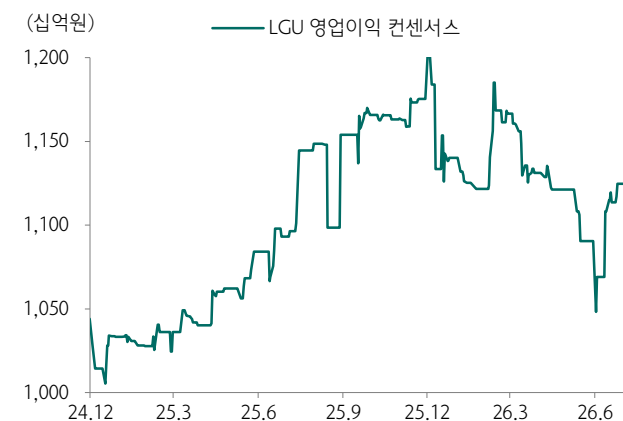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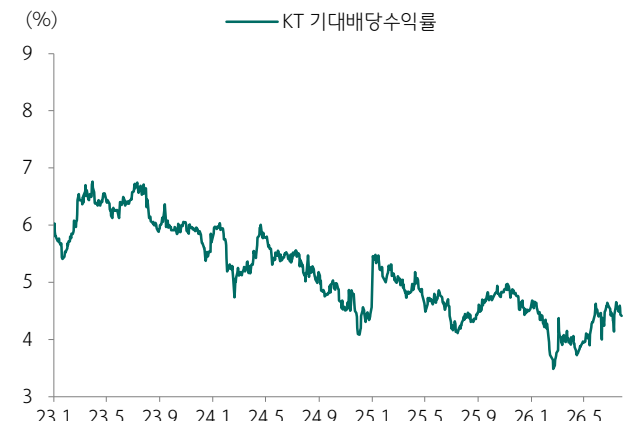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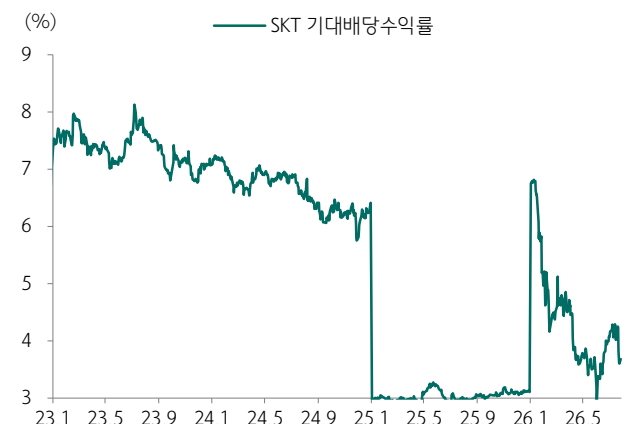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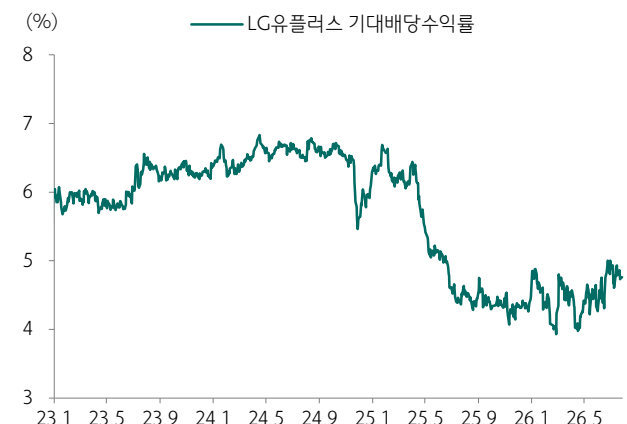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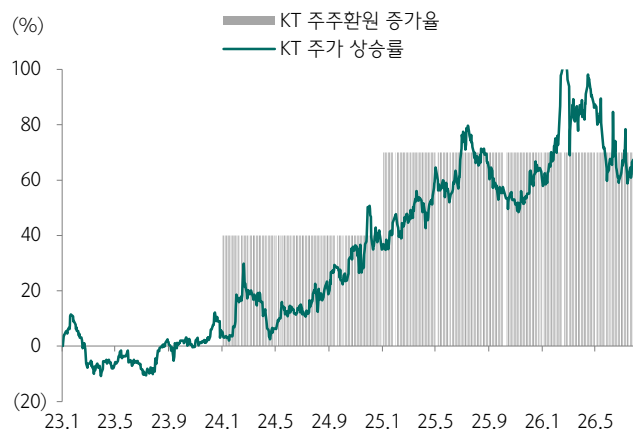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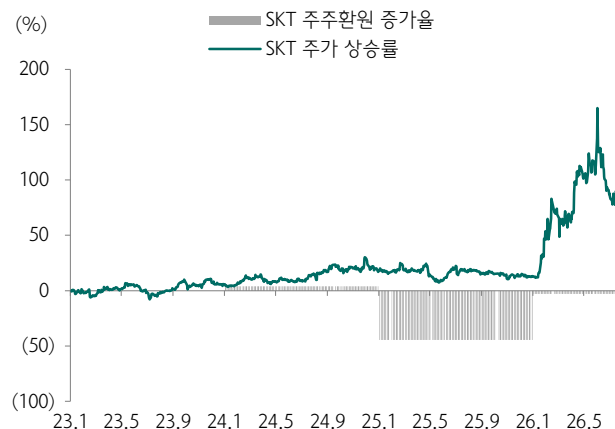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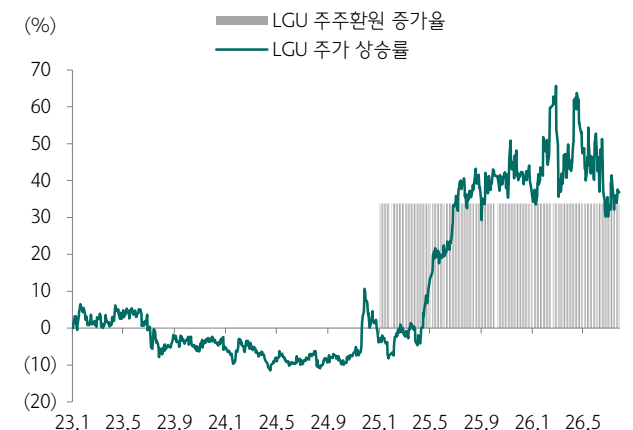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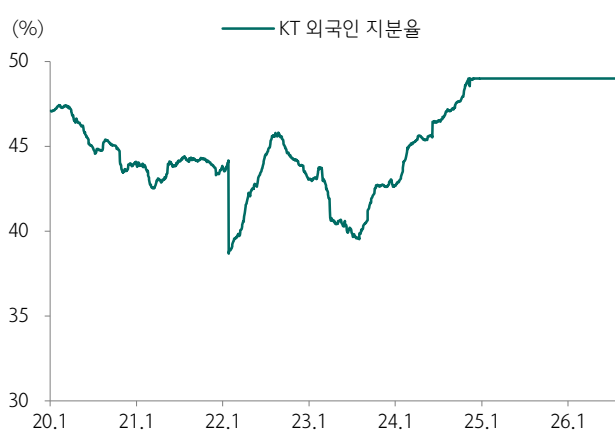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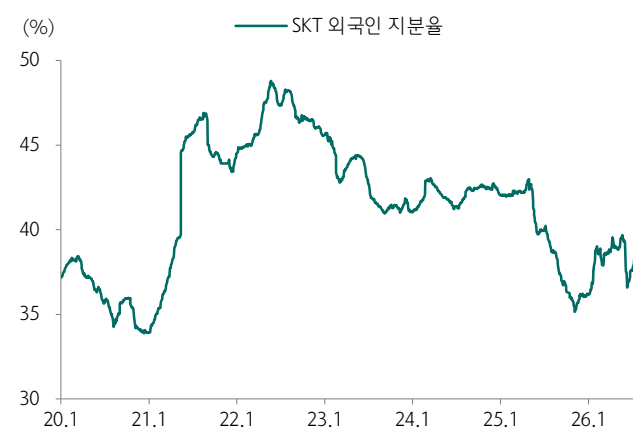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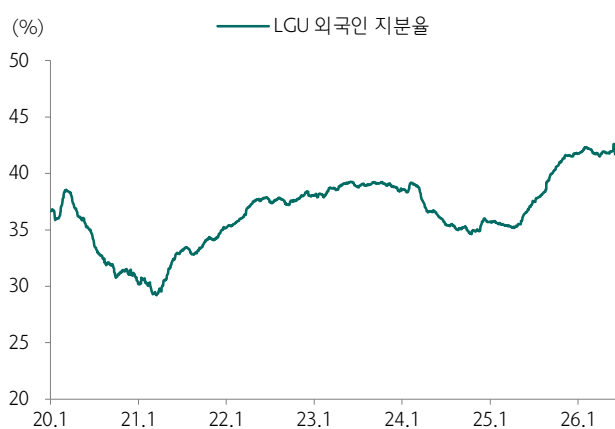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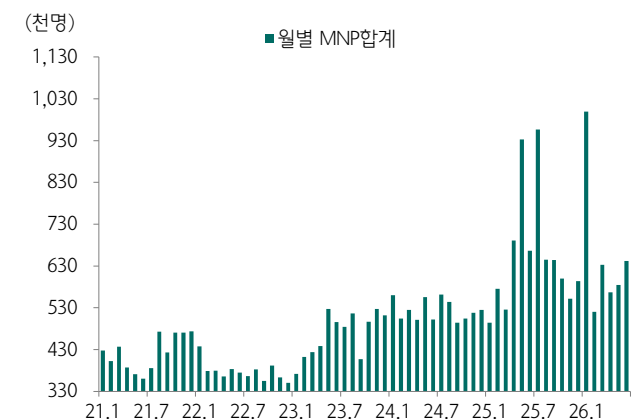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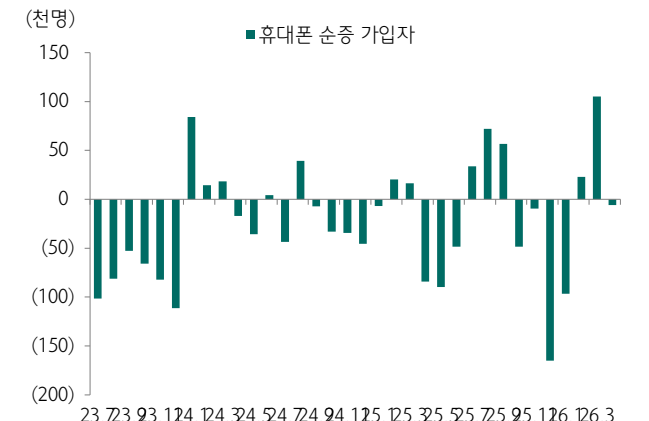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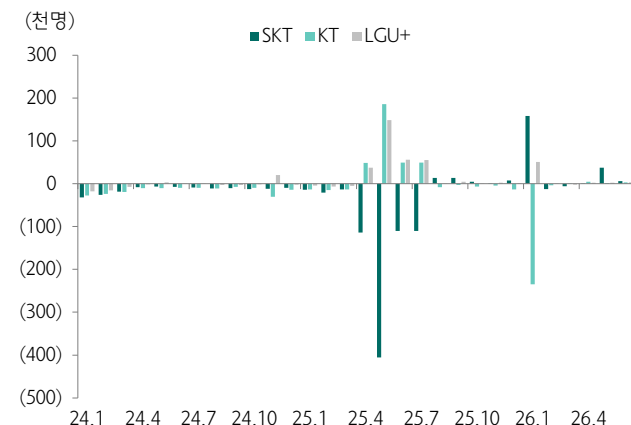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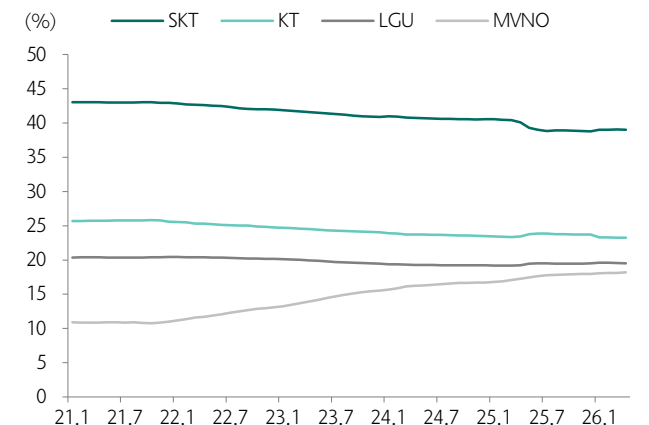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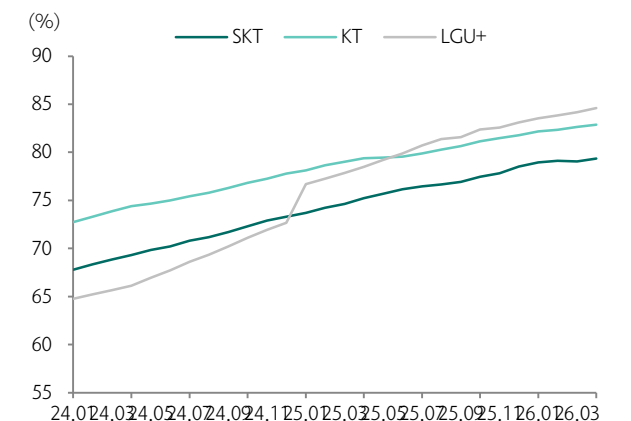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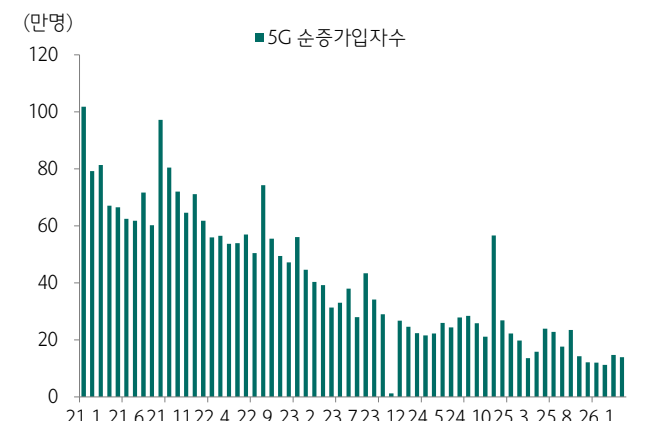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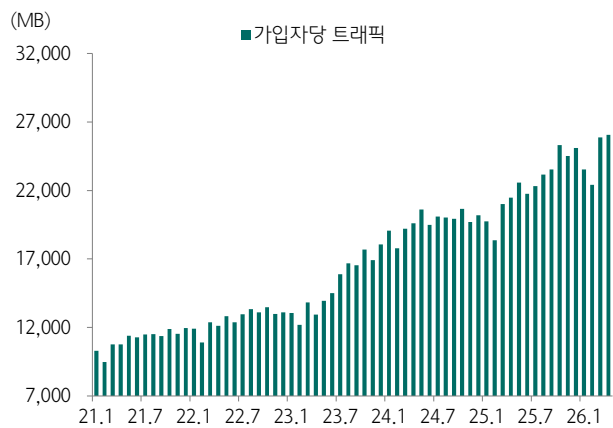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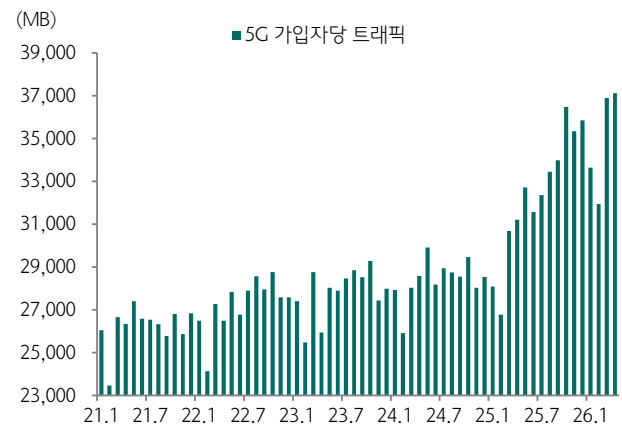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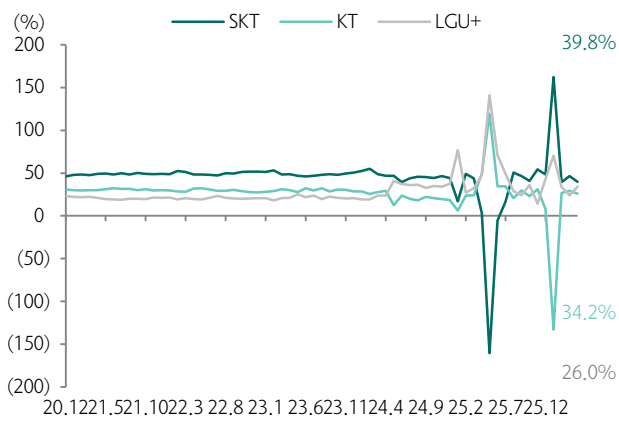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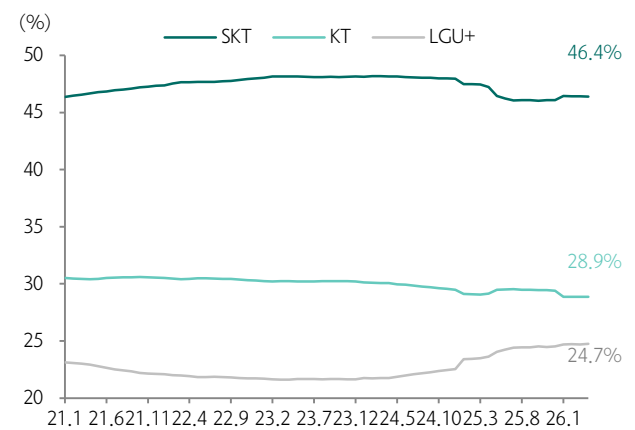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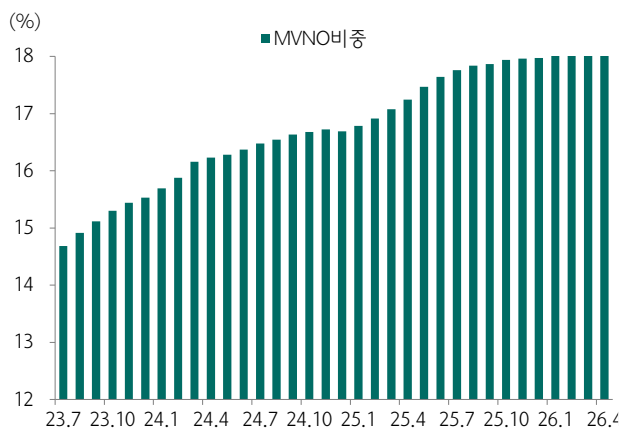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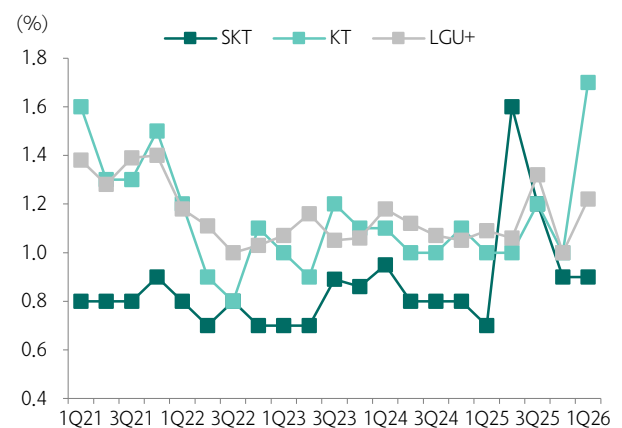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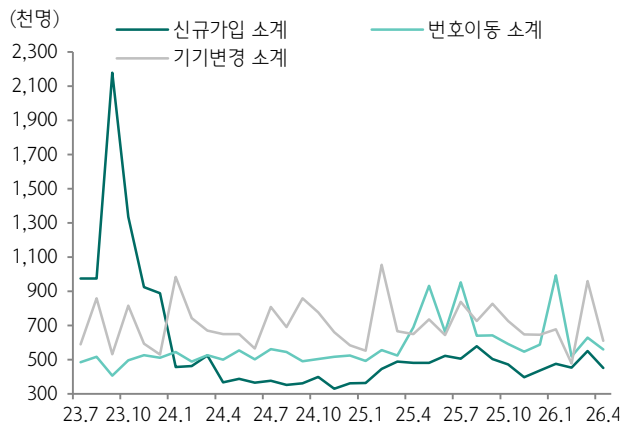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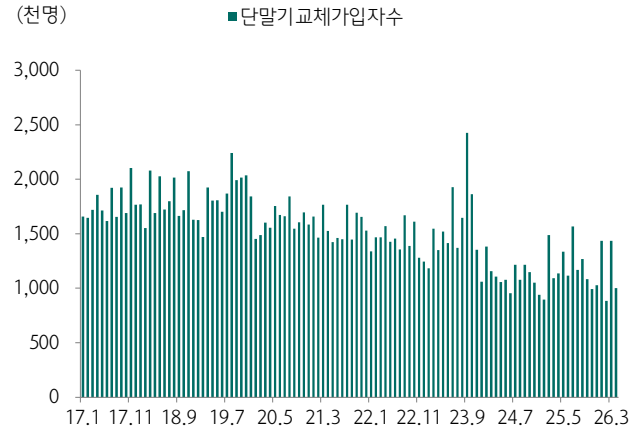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8월 투자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AI 사업 기대감 상
승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교사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AI RAN 활성화와 더불어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2025년 전액 반영 -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 휴대폰 가입자 감소,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 매출 성장 기반으로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 낮은 PBR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감소 예상 2026년 총 배당금 규모 정체 예상
종합평가	2026년 이익 급증, DPS 정상화 가능성, AI RAN 대표주자임을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8월 매력도는 SKT=LGU+>KT 순, 단기 호재 있는 SKT와 LGU+를 추천

8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SKT와 더불어 LGU+를 Top
Picks로 제시

단기적으로는 8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8월엔 SKT와 더불어 LGU+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s로 제시한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LGU+/SKT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며, SKT는 AI 국책 사업자 선정 및 AI 데이터센터/기지국 투자 본격화, LGU+는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KT는 12개월 Top Pick을 유지하는 가운데 8월 단기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2026년/2027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진정한 국내 실질 AI 관련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피지컬 AI 육성 목적으로 새로운 5G 요금제가 SKT 주도로 규제 기관과 논의될 것인데 무선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 역시 가점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SKT 주가는 확실히 경쟁사 주가와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RAN 관련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책 AI 사업자 선정이 유력해지면서부터 이러한 모습에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8월 주식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SKT의 경우 KOSPI 대비 초과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순 방어주가 아닌 AI 기지국 관련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6~7월 SKT 주가는 단기 급락하였다. 아마도 AI 관련주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큰데 기술주 반등을 계기로 SKT 주가 역시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LGU+의 경우에도 8월만 보면 투자 매력도가 높으니 단기 매수에 임할 것을 권한다. 현재 가격 메리트가 높은 편이며 수급 상황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대략 20% 내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트레이딩 전략을 추천한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26년 연간 높은 이익 성장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며, 상반기 실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8월 자사주 매입/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는데 올해는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U+ 자사주 소각 규모는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가 전망되며 장기 주주 환원 규모 증대 기대감 증대가 예상된다.

KT의 경우엔 8월에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하면 특별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라 저점 매수/고점 매도로 박스권 트레이딩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특히 해킹 과징금을 제외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천억원 중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확실한 저점 매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LGU+/SKT와 달리 상반기 비용 흐름이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올해 본사 순이익이 1조원 내외에 그칠 경우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배당 정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5년 초 당시 기대와는 달리 KT는 2026년 이후 인건비가 재차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제반 경비 전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다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 주가 상승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AI 데이터센터/RAN 관련 수혜주
KT	매수	76,000원	• 부동산 자회사 및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편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기록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8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7/27)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97,900원	90,000~140,000원	17.7	1.5	• 올해 DPS 정상화 예상, 국내 대표 양자암호+국책 AI 수혜주
1	LGU+	14,710원	14,000~20,000원	8.0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3	KT	54,400원	50,000~60,000원	9.5	0.7	• 비용 문제 재부상, 2027년 배당 정체 우려 커질 듯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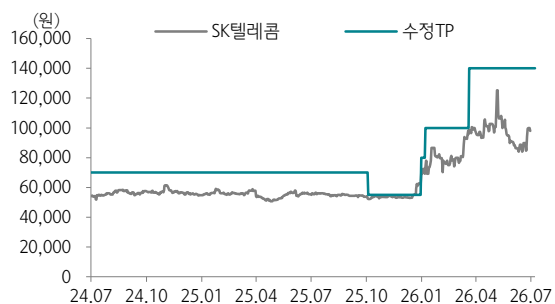
도표 35. 8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8월)	순위(7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이익 성장/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년 초기 배당 정상화 전망
LGU+	1	1	-	• 2분기 어닝 시즌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KT	3	3	-	• 비용 문제 부각, DPS/이익 전망 어두워 탄력적 주가 상승 어려울 듯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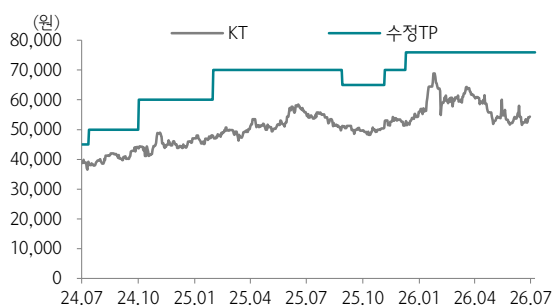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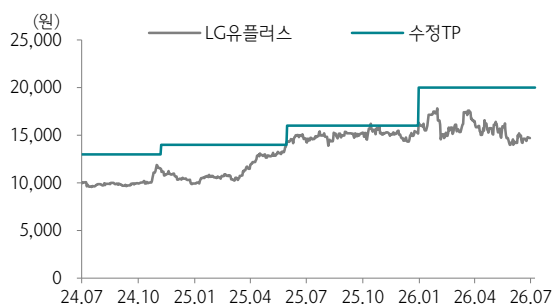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7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4%	1.86%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25일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6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30%	2.70%	0.00%	100%

* 기준일: 2026년 06월 20일